

씨뿌리는 자의 비유1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심되는 비유는 씨 뿌리는자의 비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막 4:13)”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총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짜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각기 **말씀 듣는자의 마음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같은 말씀일지라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길가는 가장 강박한 마음상태입니다. 단단해서 씨가 조금도 뿌리는 뻔지 못합니다. 결국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씨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마 13:19)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마음깊이 동의할 뿐만 아니라 결심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좋은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해봐야 겠다라고 강하게 도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정말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라고 강하게 동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바울교회의 말씀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부흥회와 같은 곳이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면 강하게 도전하셨던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도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로는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저 줄

은 말씀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서 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지난 주 설교가 뭐였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둘째는 돌짜밭입니다. 돌짜밭에는 흙이 얇게 깔려있어서 떨어진 씨가 곧 싹을 내지만, 밑에 있는 돌들들로 인해서 더 이상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여, 결국에는 뜨거운 햇볕에 떠오르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곧’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 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마 13:20-21).” 말씀에서 계속해서 곧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순종적인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사람일 경우가 많 습니다. 작은 도전에도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얇은 결심과 결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 정말 이번주는 한번 다르게 살아봐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생활의 바쁨과 피곤함들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전도의 마음을 품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 다. 마음먹었던 생각이나 계획들이 얼마가지 못해 흐지부 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 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6.9.6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방관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겉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평범하게 돈을 벌고, 자녀를 기르며,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방관자들이 어쩔 수 없지하고 포기했던 것을 독립운 동가들은 이걸 아니지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태도의 차이는 독립운동에서만이 아니라 인 류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과 같이 풍요롭고 자유하며 평등한 사회될 수 있 었던 것은 이걸 아니지라는 태도로 뭐라도 변화를 일으 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군분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걸 아니지라고하며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엄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 했던 엄마의 노력으로 인 해 결국 아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역모임

1.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이걸 아니지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일이, 모세 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2. 가정, 직장, 교회에서 이걸 아니지하고 조금이라도 바 께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지구온난화를 대단한 영향을 끼치진 못하더라도 작게 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